

용서신념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조 수 아[†]

권 석 만

임 영 진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용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으로서 용서신념을 제안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용서신념척도를 개발하여 기존의 용서척도로는 평가할 수 없었던 용서의 새로운 측면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고등학생 454명에게 용서신념척도의 예비문항을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한 결과, 용서신념척도가 자기 손상,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를 지니는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높은 용서신념 수준은 더 높은 용서와 관련되었으며, 더 낮은 부정적 정서 그리고 더 높은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용서신념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한 심리측정적 속성을 지닌 도구임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들의 의미 및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용서신념, 용서, 주관적 안녕감, 부정적 정서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 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이 연구의 일부 내용은 2010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조수아 /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아산병원길 86 서울아산병원 동관 17층 정신과 의국

Fax : 02-3010-3429 / E-mail : chosooa@naver.com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대인관계 갈등을 겪게 되며 그로 인한 상처와 고통은 때때로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오랜 기간 괴로움을 유발하기도 한다. 최근 이러한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부정적인 사고와 정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용서(forgiveness)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용서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쓰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이지만 심리학적으로 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출된 합의가 없는 실정이다. 용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희생자와 가해자가 관계에 대한 사랑과 신뢰 가능성을 회복하려는 노력”(Hargrave & Sells, 1997), “부당하게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분노할 권리, 부정적인 판단, 무관심한 행동을 버리고 연민, 관대함, 심지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Hebl & Enright, 1993), “대인관계 동기에서의 친사회적 변화 즉, 가해자에게 보복하거나 그를 회피하려는 동기가 감소하고 자애로움을 향한 동기가 증가하는 것”(McCullough et al., 1998)이 몇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 용서의 정의를 통합하려고 시도했던 연구자 중 한 명인 Enright(2001/2004)는 “용서란 상처받은 사람이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적대감을 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동정과 자비,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복합적인 심리과정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행동, 인지를 보다 긍정적인 정서, 행동, 인지로 대체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Enright의 이러한 주장은 용서과정의 다면적인 특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생각되며 국내외 많은 용서연구에서 이러한 정의를 인용하고 있다(박종효, 2006; 배정은, 2006).

용서의 개념은 본래 철학과 종교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어 온 것으로서 심리학에서 경험

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김광수, 1999, 2007; McCullough, Pargament, & Thoresen, 2000). 임상적 치료장면에서 내담자의 분노와 고통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기제로 용서의 효과를 관찰하였고(Fitzgibbons, 1986), 용서개념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론적 정립노력이 생겨났으며(Enright, Santos, & Al-Mabuk, 1989), 용서를 촉진시키는 개입의 효과에 대한 검증연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Hebl & Enright, 1993; McCullough, Worthington, & Rachal, 1997).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용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용서의 심리적 과정 및 기제에 관한 것으로서 용서의 다양한 신체적·심리적 효과에 관한 연구, 용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예: Girard & Mullet, 1997) 등이다. 최근에는 용서의 기제를 뇌 생리학과 관련하여 밝히려는 연구 흐름도 생겨나고 있다(Farrow & Woodruff, 2005; Worthington, Witvliet, Pietrini, & Miller, 2007). 두 번째는 용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에 관한 것인데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내담자에 대한 개입전략으로서 용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있다. 용서에 대한 국내연구는 친구 사이의 용서를 중심으로 용서의 발달을 살펴본 오영희(1990)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용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한 김광수(1999), 용서심리검사 질문지를 타당화하고 용서 프로그램을 다양한 집단에 실시한 박종효(2003, 2006)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용서가 선행 연구결과들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상황 즉, 용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용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령,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용서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지, 용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지, 동일한 상황이 주어질 경우 개인의 용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요인인지에 대한 연구가 바로 그러한 연구에 속한다. 용서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용어 중 가해사건(transgression)이라는 것은 “세상과 타인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가정을 침해하는 사건들로서, 잘못된 행위나 도덕적 과오를 통해 심리적, 신체적 고통과 상처를 주는 행위”로 규정된다(Thompson et al., 2005; Worthington & Wade, 1999).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과 타인에 대하여 자신만의 기대와 가정을 지니게 마련인데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리고 가정에 어긋나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고통을 겪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몇몇 연구자들은 고통과 상처를 주는 가해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여타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고, 이런 맥락에서 용서를 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서 초점적 대처과정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Worthington & Scherer, 2004). 최근 Maltby 등(2007)은 다양한 대인관계 갈등상황을 스트레스원으로 보았을 때 이런 상황에서 선택하는 하나의 대처전략이 ‘용서’라고 주장하며 대처전략으로서의 용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Maltby, Macaskill, & Gillett, 2007). 이처럼 용서를 대인관계 갈등상황에서 취하는 하나의 대처전략이라고 볼 경우 용서를 대처방법으로 선택하도록 만드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진다. 현재까지 용서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행위의 의도성, 가해자의 사과 여부(Darby &

Schlenker, 1982)와 같은 상황적 요인들과 가해자와의 친밀도(Girard & Mullet, 1997), 관계 지속 여부(Weiner, Graham, Peter, & Zmuidinas, 1991)와 같은 관계적 요인들이 용서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용서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많지 않으며,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는 용서의 인지적 측면은 용서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변화에 관한 것이 대부분으로, 용서 선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Malcolm과 Greenberg(2000)는 개인 심리치료에서 일어나는 용서의 과정을 개념화하면서, 강렬한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고 충족되지 않았던 대인관계적 욕구를 표현하고 나면 인지도식의 재조직화가 일어나서 내담자의 관점이 변화한다고 제안하였다. 용서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인지적 변화에 대하여 Rowe 등(1989)은 “용서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내러티브가 구성되며 이를 통해 개인은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고 이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본래 일어났던 상황이 가지는 의미는 이제 새로운 관점 하에 조명된다”고 하였다(Rowe, Halling, Davies, Leifer, Powers, & Van Bronkhorst, 1989; Malcolm & Greenberg, 2000에서 재인용). 이처럼 용서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과 그 상황에 대한 인지적 재구성 과정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는 용서를 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인지적 과정일 뿐 용서를 하기로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은 심리학 내에서는 이미 널리 인정된 사실이다. 특히 정서 장애

및 문제행동의 발생과 유지,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위인지(meta cognition)’는 용서 연구에서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상위인지란 심리적 과정 및 행동에 대해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신념이다(Cartwright-Hatton, & Wells, 1997). 주요우울장애에서 반추에 대한 신념(Wells & Matthews, 1994), 범불안장애에서 걱정 에 대한 걱정(Wells & Matthews, 1994), 약물 중독에서 약물 섭취에 대한 신념(Toneatto, 1999), 니코틴 의존에서 정서와 흡연 의존행동을 매개하는 흡연에 대한 상위인지적 신념(Spada, Nikčević, Moneta, & Wells, 2007)이 이러한 상위인지의 예로서 각 심리적 과정 및 행동에 대하여 개인이 어떠한 대처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수많은 대인관계 스트레스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처방법 중 하나가 용서라면, 용서라는 행위과정에 대하여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신념들 즉 용서의 상위인지(meta cognition of forgiveness)가 용서선택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다양한 상황적, 관계적 요인들이 용서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과연 무엇이 개인의 용서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용서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신념이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제시된 바 없는 개념으로서 이를 측정하는 척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용서연구가 진행되면서 많은 용서척도들이 개발되었지만 Brown(2003)의 5문항짜리 ‘용서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Forgiveness: ATF)’ 척도를 제외하고는 용서에 대한 상위인지적 신념을 측정하는 척도는 현재까지 없다. Brown(2003)의

ATF는 용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용서 척도와는 분명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지만 문항 수가 매우 짧고 신념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용서신념이란 용서에 대하여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용서라는 심리적 과정 혹은 행위에 대해 지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내용의 신념들이며 이러한 신념의 내용과 강도에 따라서 개인의 용서 경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가정한다. 용서신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것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는 용서 경향성을 높이는 신념과 낮추는 신념, 다시 말하면 용서를 하도록 만드는 신념과 용서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신념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용서의 긍정적인 의미나 용서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용서의 부정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용서 경향성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서선택과정 즉, 용서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용서의 상위인지로서 용서신념(forgiveness beliefs)을 제안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용서신념척도(Forgiveness Beliefs Scale, 이하 FBS)를 개발하여 그 요인구조와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참가자

용서신념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하

여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1학년생 454명을 대상으로 용서신념척도 예비문항과 가해행동 대인관계 동기척도를 실시하였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최종 453명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하였다. 평균 연령은 15.86세($SD=.501$)로 범위는 14세에서 17세였으며 남성이 198명(43.8%), 여성이 255명(56.2%)이었다. 설문지는 해당 학교의 허락을 얻어 교사 자율재량 수업시간에 실시하였으며, 미리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도우미들이 연구자와 함께 각 반에 들어가 설문지 실시과정을 도왔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여 용서신념척도 최종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다른 질문지들과 함께 같은 학교 1학년생 284명(남 137명, 여 147명)에게 실시하였다. 연령범위는 15세에서 17세였으며 평균연령은 15.82세($SD=.447$)였다.

측정도구

용서신념척도(Forgiveness Beliefs Scale, 이하 FBS)

용서에 대하여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신념의 내용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용서가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자기손상 7문항과 용서가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들에 대한 부정적 효과 5문항, 자신 및 가해자,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효과 7문항의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는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신념별 점수를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두 가지 부정적 신념을 역코딩하여 합산한 총점을 이용하여 전체 용서신념수준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Enright 용서심리검사 한국어판 축약형 (Enright Forgiveness Inventory- Korean Short form, 이하 EFI-KS)

Enright 용서검사 한국판(EFI-K)은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어느 정도 용서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Subkoviak 등(1995)이 개발한 65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박종효(2006)가 번안 및 타당화한 검사이다. 이 검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는 가해사건과 가해자 정보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두 번째 부분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부정적 정서/행동/인지의 부재와 긍정적 정서/행동/인지의 존재라는 6가지 영역에 대하여 각 영역당 1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1점(강한 부정)에서 6점(강한 긍정)의 6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총점 범위는 60점에서 3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이 용서한다고 해석한다. 세 번째 부분은 허위반응을 가려내기 위한 5문항과 참가자가 스스로 용서 정도를 직접 평가하도록 하는 한 문항 용서척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EFI-K를 축소판으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사건과 가해자 정보에 관한 부분 중에서 상처를 준 가해자의 생존 여부,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대한 질문과 상처받은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술문항은 연구의 목적과 크게 상관이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또한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의 답안도 연구 대상인 고등학생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예: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고용주 등의 답안을 삭제하고 교사와 부모로 바꿈). 둘째, EFI-K의 문항 수가 너무 많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여타 다른 척도와 함께 응답하기에는 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박종효(2006)의 타당화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각 영역별 요인부하량이 높은 순으로 5문항씩 총 30문항을 선정하였으며¹⁾, 평정 척도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 사이로 구성하였다. 셋째, 허위반응 문항과 한 문항 용서척도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68이었다. EFI-KS는 용서 측정을 위해 사용된 또 다른 용서척도인 TRIM과 높은 부적 상관($r = -.68, p < .001$)을 보였다.

가해행동 대인관계 동기척도(Transgression 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 Inventory, 이하 TRIM)

McCullough 등(1998)이 개발한 용서측정 척도로서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TRIM은 가해자에 대한 보복 동기를 측정하는 5문항과 회피 동기를 측정하는 7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총점 범위는 12점에서 60점으로 총점이 낮을수록 더 많이 용서한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3이었다.

1) 부정적 행동 문항 중 '나는 그 사람을 간과한다'라는 문항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언뜻 이해하기에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나는 그 사람을 무시한다' 문항을 대신 선택하였다. '무시한다' 문항은 '간과한다' 문항과 거의 같은 수준의 높은 부하량을 보인 문항이다.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이하 CES-D)

CES-D는 Radloff(1977)가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개발한 통합적 한국어판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과 관련된 행동, 신체, 인지 증상들에 대한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0점(극히 드물게)에서 3점(거의 대부분) 사이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 범위는 0점에서 60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하며 미국판 CES-D의 경우 16점을 기준으로 정상인과 우울 환자의 구분을 시도한다(전경구 등, 2001).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88이었다.

한국판 Beck 불안척도(Beck Anxiety Inventory, 이하 BAI)

Beck, Epstein, Brown과 Steer(1988)에 의해 개발된 불안증상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won(1992)이 번안한 한국판 Beck 불안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73이었다.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이하 STAXI-K)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의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특성으로서가 아니라 현재 경험하고 있는 증상으로서의 분노만을 측정하고자 하였고, STAXI-K에서 상태분노를 측정하는 10문항만을 사용하였

다. 각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7이었다.

Rosenberg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 이하 SES)

SES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것으로 자기 개념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는 10문항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87이었다.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이하 SWLS)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인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척도로서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하였다. 총 5문항으로 7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99였다.

정서적 주관적 안녕감 척도(Subjective Well-being, 이하 SWB)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한덕웅과 표승연(2002)이 사용한 1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대립되는 정서 형용사를 양 끝에 두는 7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26이었다.

절차

1단계: 용서신념척도 예비문항 수집

용서신념척도의 예비 문항은 사람들이 용서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태도와 신념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Lawler-Row, Scott, Raines, Edlis-Matityahou, & Moore, 2007; Younger, Piferi, Jobe, & Lawler, 2004)과 문헌들(Enright, 2001/2004; Lusk, 2002/2003; Spring, 2004), 용서 프로그램 사례분석(김광수, 1999)에 근거하여 일차적으로 제작하였다.

예비문항을 결정할 때에는 크게 용서를 하도록 만드는 신념과 용서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신념 즉 긍정적 용서신념과 부정적 용서신념의 두 가지 차원 안에서 문항내용을 정하였다. 또한 긍정적 신념과 부정적 신념의 하위 차원으로 용서의 의미와 용서의 효과를 고려하였다. 즉, 예비문항의 4가지 차원은 각각 용서의 긍정적 의미에 대한 신념(예를 들면, “용서한다는 것은 넓고 관대한 마음의 표현이다”), 용서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신념(예를 들면, “용서한다는 것은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다”), 용서의 부정적 의미에 대한 신념(예를 들면, “용서한다는 것은 위선적으로 보인다”), 용서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신념(예를 들면, “용서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보도록 만든다”)이었다. 이렇게 수집된 초기 80문항 중에서 내용이 겹치는 문항과 이해하기 까다로운 문항들을 제외하고 1차 예비문항이 선택되었다.

문항의 제작과 선택에 있어서의 원칙은 각 문항이 특수한 개인적 상황에 한정되기보다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신념내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대상을 일반 고등학생으로 하였기 때문에 문항 이해에 어려움이 없도록 단어선택과 문장 구성에 신중을 기하며 수정하였다. 이렇게 선택된 문항에 대해 임상심

리 전문가 5인에게 검토를 받았으며, 이후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용서신념척도 예비문항 68개가 완성되었다. 예비 척도는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4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2단계: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확인

용서신념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참가자 454명의 자료 중 결측치를 제외한 453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15.86세($SD=.501$)로 연령범위는 14세에서 17세였으며 남성이 198명(43.8%), 여성이 255명(56.2%)이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용서신념척도 최종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문항 전체와 각 하위 요인에 대해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계산하였다. 또한 3주 간격으로 용서신념척도를 재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3단계: 용서신념척도와 다른 척도들 간의 관계

용서신념과 관련성을 맺고 있을 것으로 가정된 용서를 측정하는 척도들 및 선행 연구들에서 용서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심리적 특성, 즉 부정적 정서 및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용서신념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통계적 분석

통계적 분석은 SPSS for Windows(version 12.0)를 사용하여 기술 통계치를 구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및 상관분석을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기 전에 예비문항 68문

항 중에서 용서와의 상관이 높은 문항을 선별하였다. 용서신념척도 예비문항과 함께 실시하였던 가해행동 대인관계 동기척도(TRIM) 점수와 각 문항 점수의 상관을 구하여 크기가 .20 이상인 문항들을 탐색적 요인분석에 포함시켰다. TRIM은 용서 정도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용서척도 중 하나로서 이 척도와 일정수준 이상의 상관을 보이는 문항들은 용서와 어느 정도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2차 예비문항 27문항이 선택되었고 이 문항들을 대상으로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부하량이 작거나 교차 부하값을 보이는 문항들을 탈락시키는 과정을 통해 8문항이 탈락되고 최종적으로 19문항이 선별되었으며 3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용서신념 척도 2차 예비문항 27문항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MO(Kaiser-Meyer-Olkin) 적합성 지수는 .949로 문항 간 상관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Bartlett 검증 결과는 $\chi^2(351, N=450)=5787.220, p<.001$ 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절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회전방식은 사각회전 방식 중 프로맥스(promax, $kappa=4$)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고유치(eigen value)가 1.0 이상인 요인이 3개 도출되었으며 Scree 도표를 이용하여 고유치의 감소 정도를 고려했을 때에도 3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여겨졌다.

요인 수를 3개로 지정하여 사각회전 방식으로 회전시킨 뒤, 요인 부하량이 낮거나($<.40$), 교차 부하값(cross loading)을 보이는 문항을 탈락시켰으며 그 결과 3개의 요인에 대하여 19 문항이 남게 되었다. 19문항을 대상으로 문항 간 응답 분포와 각 문항 간의 상관 수준을 고

려하였고 탈락되는 문항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의 내용들이 하나의 요인으로서 적절한지 혹은 중복되지 않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도 탈락되는 문항은 없었다. 용서신념척도의 최종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용서신념척도(FBS)의 요인구조

문항번호	문항 내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1. 자기 손상				
12.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보도록 만든다.	.829	-.106	.024
11.	악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	.775	-.203	-.059
39.	나를 힘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든다.	.642	.213	.149
41.	결국 내가 지는 것이다.	.639	.164	.009
5.	상처받은 일을 잊는다는 것이므로 부끄러운 일이다.	.571	-.043	-.033
37.	사람들에게 나를 더 괴롭힐 여지를 준다.	.504	.251	.067
35.	내 사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03	.059	-.159
요인 2. 부정적 효과				
61.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앙금을 남긴다.	-.086	.845	.030
49.	내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든다.	-.091	.811	-.063
45.	나중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괴로워진다.	.114	.679	.030
47.	상처를 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없애버린다.	.186	.542	.020
57.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사과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	.191	.503	.020
요인 3. 긍정적 효과				
50.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내가 모두 행복해지는 길이다.	.020	-.071	.767
31.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어준다.	.084	.059	.728
19.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다.	.088	-.072	.677
48.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진정으로 감싸 안는 따뜻한 일이다.	-.029	-.032	.673
23.	마음속에 분노를 지니고 사는 것보다 낫다.	-.140	.133	.607
52.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074	-.139	.602
56.	나 자신이 한층 성숙해지는 일이다.	-.142	.086	.576

최종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와 각 요인의 내용

요인 1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보도록 만든다(12)’,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11)’, ‘나를 힘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든다(39)’ 등의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1의 구성 문항들을 살펴볼 때 용서가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들에 대한 신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요인 1은 ‘자기 손상’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1의 고유치는 10.41, 설명변량은 38.55%로 나타났다.

요인 2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앙금을 남긴다(61)’, ‘내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든다(49)’, ‘나중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괴로워진다(45)’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의 구성 문항들을 살펴볼 때 용서를 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 및 효과에 대한 신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요인 2는 ‘부정적 효과’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의 고유치는 2.55, 설명변량은 9.44%로 나타났다.

요인 3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내가 모두 행복해지는 길이다(50)’,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어준다(31)’,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다(19)’ 등의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의 구성 문항들을 살펴볼 때 용서가 자신 및 가해 상대방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신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요인 3은 ‘긍정적 효과’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의 고유치는 1.09, 설명변량은 4.03%로 나타났다.

용서신념척도의 신뢰도

내적 합치도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용서신념척도(FBS) 19문항 전체와 각 하위요인에 대해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전체 문항에 대한 응답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17($N=284$)로 매우 높은 편이었고 각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52 ~ .858로 높은 수준이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43명의 피험자에 대해 3주 간격으로 FBS를 재 실시하였다. FBS 19문항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16으로 나타났다으며, 각 하위 요인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26 ~ .699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용서에 대하여 지니는 생각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용서신념척도와 용서 및 다른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용서신념과 용서, 그리고 부정적 정서 및 주관적 안녕감과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Diener와 Lucas(2000)는 ‘긍정적 정서가 많고 부정적 정서가 적은 상태,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 상태’를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고 하였다. 이 정의에 따르면 우울, 분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가 적고 삶의 만족도나 정서적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상태를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이라 함은 이러한 상태를 뜻한다.

용서는 EFI-KS, TRIM 두 가지 척도의 점수로 측정하였으며 두 용서척도는 높은 부적상관($r=-.68, p<.001$)을 보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용서신념은 용서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

표 2. 용서신념척도와 용서, 부정적 정서 및 주관적 안녕감과 의 상관관계

	주관적 안녕감 (SWB)	용서 신념	용서 (EFI-KS)	용서 (TRIM)	우울 (CES-D)	분노 (STAXI-K)	불안 (BAI)	자존감 (SES)
용서신념	.25***							
용서 (EFI-KS)	.26***	.39***						
용서 (TRIM)	-.26***	-.45***	-.68***					
우울 (CES-D)	-.68***	-.19**	-.16**	.18**				
분노 (STAXI-K)	-.53***	-.37***	-.22***	.30***	.53***			
불안 (BAI)	-.39***	-.15**	-.06	.15*	.65***	.51***		
자존감 (SES)	.59***	.16**	.11	-.19**	-.60***	-.33***	-.35***	
삶의 만족도(SWLS)	.50***	.19**	.19**	-.24***	-.47***	-.26***	-.24***	.57***

였다(EFI-KS의 경우 $r=.39$, $p<.001$, TRIM의 경우 $r=-.45$, $p<.001$). 즉 용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더 많이 용서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정적 정서경험의 경우, 용서신념은 우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19$, $p<.01$), 분노($r=-.37$, $p<.001$), 불안($r=-.15$, $p<.05$) 과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과 용서신념의 관계를 살펴보면 용서신념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19$, $p<.01$), 정서적 주관적 안녕감 지표($r=.25$, $p<.001$)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서신념수준이 높을수록 즉 용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더 높은 용서를 나타내며 더 낮은 부정적 정서와 더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서신념척도와 용서 및 다른 심리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용서의 인지적 결정요인이자 상위인지적 신념으로서 제안된 용서신념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는데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택된 용서신념척도의 19문항은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신뢰도를 나타냈다. 용서신념척도의 세 가지 하위요인은 각각 자기 손상,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라고 명명되었으며 용서라는 것에 대해 개인이 지니는 신념의 내용과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자기 손상은 용서가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내용의 신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효과는 용서를 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 및 효과에 대한 내용의 신념들로 구성되었고 긍정적 효과는 용서가 자신 및 가해 상대방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내용의 신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척도의 점수는 부정적인 하위

신념 두 가지의 응답점수를 역으로 코딩하여 나머지 긍정적인 신념의 응답점수와 합산한 뒤 총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때 용서 신념의 총점이란 용서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목적에 따라서는 용서신념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점수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용서신념의 세 하위요인 점수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산한 용서신념총점은 더 많은 용서와 관련된다고 생각되었다. 즉, 용서가 자신이나 상대방, 그리고 그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신념에 동의하는 정도가 크고, 자신이나 상대방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념에 동의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용서신념 수준이 높다고 해석되었다.

용서에 대해 지니는 상위인지적 신념, 즉 용서신념을 측정하는 용서신념척도의 개발을 통해 기존의 용서척도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었던 용서결정의 인지적 측면들을 살펴볼 기회를 얻게 되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관찰된 용서의 긍정적인 특성들 즉 부정적 정서의 감소라든지 주관적 안녕감의 증가와 관련되는 측면들에 대하여 용서신념이라는 차원이 어떠한 설명력을 더해줄 수 있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용서는 낮은 부정적 정서 및 높은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되는데 (김광수, 1999, 2007; 박종효, 2006; Coyle & Enright, 1997; Mullet, Neto, & Riviere., 2005; Reed & Enright, 2006)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높은 용서수준은 낮은 우울, 분노와 관련이 있었고 높은 삶의 만족도, 정서적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었다. 부정적 정서 중 용서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여겨지는

것은 분노(Davenport, 1991; Fitzgibbons, 1986)인데 본 연구에서도 분노는 용서와 가장 높은 상관($r=-.22, p<.001$)을 보였다. 불안 및 우울의 경우는 좀 더 비일관적인 선행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용서의 상관($r=-.16, p<.01$)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용서신념척도로 측정한 용서신념을 포함하여 상관분석을 한 결과, 용서신념은 용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부정적 정서 및 주관적 안녕감을 나타내는 지표들과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용서신념이 높을수록 더 높은 용서와 관련이 있었고, 더 낮은 우울, 분노, 불안 그리고 더 높은 삶의 만족도 및 정서적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용서신념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용서를 보이며, 더 낮은 부정적 정서와 더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경험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의의를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용서신념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용서 연구가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도 용서를 측정하는 척도들은 끊임없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지만 용서에 대한 상위인지적 신념을 측정하는 척도는 아직 개발된 바 없다. Brown(2003)이 용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5문항을 만들긴 했으나 다양한 내용의 용서신념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용서신념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용서신념은 용서와 부정적 정서, 주관적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용서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용서신념에 대한 개입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령 용서 프로그램 시행시 각 개인이 지닌 용서신념을

측정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면 용서를 좀 더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용서신념의 하위 요인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용서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신념이었다. 이는, 용서가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용서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용서과정을 가르치고 용서의 효과에 대해 교육하기 이전에 개인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 용서신념의 내용과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면 용서 개입 및 프로그램의 효과는 더욱 증진될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용서신념척도의 세 가지 하위신념들을 각각 활용한다면 더욱 구체적인 용서신념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상관분석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정서 중 분노가 용서 및 용서신념과 가장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우울 또한 용서 및 용서신념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용서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분노와의 관련성이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우울 및 불안은 그 관계가 일관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존감에 대한 결과 또한 일관되지 않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용서 및 용서신념과 크게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Muller 등(2005)의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연구마다 이렇듯 다양한 상관 정도를 보고하는데에는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용서척도가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이러한 용서척도가 가정하고 있는 용서의 개념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일 것이다. 용서 연구에서 이렇게 일관되지 않는 결과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합의된 용서의 조작적 정의를 확립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을 위한 몇 가지 논의를 하려고 한다. 첫째, 본 연구가 고등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지는 불가피한 한계가 있다. 용서신념척도의 개발 및 신뢰도, 타당도 연구가 모두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과연 이 척도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이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다 실제적인 용서관련 문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용서신념척도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질문지와 척도만을 사용한 횡단적(cross-sectional) 연구로서 상관관계만을 볼 수 있을 뿐 인과관계를 가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용서신념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용서를 촉진하는지 또한 이것이 주관적 안녕감의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용서 프로그램 및 용서 개입 장면에서 용서신념 수준에 대한 개입을 통해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Brown(200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서에 대한 태도와 실제 용서 정도 사이의 차이는 우울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었다. 즉, 용서가 매우 훌륭한 미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에 대해 좋게 생각하면서 실제로도 용서를 잘 하는 사람보다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자료를 이용하여 용서신념 수준과 실제 용서 수준의 괴리에 따른 우울 등 부정적 정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Brown(2003)의 결과를 검증할 수는 없었다. 이는 표본 집단의 특성 및 사용된 척도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용서신념척도를

이용하여 Brown의 연구를 확장한다면 흥미로운 결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에도 연구자가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을 가장 적합하게 측정해 줄 용서척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으로 생각되는 관대함과 용서가 측정에 혼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서척도의 다양한 종류와 많은 수에 비해 국내에 타당화된 용서척도는 박종효(2006)에 의한 EFI-K가 유일하다. 앞으로의 용서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용서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용서의 대상이 다른 사람인 용서, 즉 대인관계에서의 타인용서를 기본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경향을 보면 용서의 하위 형태를 구분하려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용서의 하위 형태에 따라 연구의 주안점이 달라지기도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타인용서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자기용서가 연구되었고(Maltby, Macaskill, & Day, 2001; Mauger et al., 1992; Tangney, Boone, & Dearing, 2005), Worthington과 Scherer(2004)는 결단적 용서(Decisional Forgiveness)와 정서적 용서(Emotional Forgiveness)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결단적 용서란 가해자를 향한 보복과 회피를 그만두겠다는 피해자의 행동적 의지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고 정서적 용서란 부정적인 정서가 긍정적이며 타인 지향적인 정서로 대체되는 것을 뜻한다. Worthington 등(2007)은 이러한 결단적 용서와 정서적 용서가 매우 다른 과정과 결과물을 가지는 용서의 하위개념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용서 연

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서의 하위 형태 구분에 관한 노력들을 반영하려는 시도가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용서는 선택이다’라는 Enright(2001/2004)의 말처럼,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심리적 고통과 상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어찌면 용서에 대한 잘못된 신념 때문일 수도 있다. 용서하는 것이 나를 더욱 힘들게 할 것 같고, 부끄러운 일인 것만 같고, 나를 힘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만 같아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의 이러한 신념들을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안전하게 검증해볼 기회를 준다면 그는 진정한 용서에 대해 새로운 신념들을 가지게 될지 모른다. 용서신념은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용서 연구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수 (1999). 용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광수 (2007). 용서의 심리와 교육프로그램. 과주: 한국학술정보(주).
- 박종효 (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301-321.
- 박종효 (2006). Enright 용서심리검사(EFI-K)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0, 265-282.
- 배정은 (2006). 성격 특성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 -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영희 (1990). 용서의 발달: 친구사이의 용서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4, 247-273.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77-290.
- 전점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 59-76.
- 전점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60-78.
- 한덕웅, 표승연 (2002). 정서 경험에 따른 주관 안녕, 건강지각 및 신체질병의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 403-427.
- Beck, A. T., Epstein, N., Brown, G., & Steer, R. A. (1988). An inventory of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93-897.
- Brown, R. P. (200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tendency to forgive: Construct validity and links with dep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759-771.
- Cartwright-Hatton, S., & Wells, A. (1997). Beliefs about worry and intrusions: the meta-cognitions questionnaire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3, 279-296.
- Coyle, D., & Enright, R. D. (1997). Forgiveness intervention with post-abortion 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 1042-1046.
- Darby, B. W., & Schlenker, B. R. (1982). Children's reaction to apolo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742-753.
- Davenport, D. (1991). The functions of anger and forgiveness: Guidelines for psychotherapy with victims. *Psychotherapy*, 28, 140-144.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 Lucas, R. E. (2000). Explaining differences in societal levels of happiness: Relative standards, need fulfillment, culture, and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41-78.
- Enright, R. D. (2004). 용서치유: 용서는 선택이다 [*Forgiveness is a choice*]. (채규만 역). 서울: 학지사. (원저는 2001년에 출판)
- Enright, R. D., & Coyle, C. T. (1998). Researching the process model of forgiveness within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n E. L. Worthington, Jr. (Ed.), *Dimensions of forgiveness: Psychological research & theological perspectives*. Philadelphia: Templeton Foundation Press.
- Enright, R. D., & North, J. (Eds.) (1998). *Exploring forgiveness*.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Enright, R. D., Santos, M. J. C., & Al-Mabuk, R. (1989). The adolescent as forgiver. *Journal of Adolescence*, 12, 95-110.
- Farrow, T. F. D., & Woodruff, P. W. R. (2005). Neuroimaging of forgivability. In E. L. Worthington, Jr. (Ed.), *Handbook of forgiveness*. NY: Routledge.
- Fitzgibbons, R. P. (1986). The cognitive and emotional uses of forgiveness in the treatment of anger. *Psychotherapy*, 23, 629-633.
- Girard, M., & Mullet, E. (1997). Propensity to forgive in adolescents, young adults, older

- adults, and elderly peopl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4, 209-220.
- Hargrave, T. D., & Sells, J. N. (1997). The development of a forgiveness scale. *Journal of Marital of Family Therapy*, 23, 41-62.
- Hebl, J. H., & Enright, R. D. (1993). Psychotherapy as a psychotherapeutic goal with elderly females. *Psychotherapy*, 30, 658-667.
- Kwon, S. M. (1992). *Differences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an integrated model of depression*. Ph. D.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in Australia.
- Lawler-Row, K. A., Scott, C. A., Raines, R. L., Edlis-Matityahou, M., & Moore, E. W. (2007). The varieties of forgiveness experience: Working toward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forgivenes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46, 233-248.
- Luskin, F. (2003). 용서 - 나를 위한 용서, 그 아름다운 용서의 기술 [*Forgive for good: A Proven prescription for health and happiness*]. (장현숙 역).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원저는 2002년에 출판)
- Malcolm, W. M., & Greenberg, L. S. (2000). Forgiveness as a process of change in individual psychotherapy. In M. E. McCullough, K. I. Pargament, & C. E. Thoresen (Eds.),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Y: The Guilford Press.
- Maltby, J., Macaskill, A., & Day, L. (2001). Failure to forgive self and other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personality, social desirability and general heal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881-885.
- Maltby, J., Macaskill, A., & Gillett, R. (2007). The cognitive nature of forgiveness: using cognitive strategies of primary appraisal and coping to describe the process of forgiv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3, 555-566.
- Mauger, P. A., Perry, J. E., Freeman, T., Grove, D. C., McBride, A. G., & McKinney, K. E. (1992). The measurement of forgiveness: Preliminary research.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1, 170-180.
- McCullough, M. E., Pargament, K. I., & Thoresen, C. E. (2000). The psychology of forgiveness: History, conceptual issues, and overview. In M. E. McCullough, K. I. Pargament, & C. E. Thoresen (Eds.),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Y: The Guilford Press.
- Mc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E. L. Jr., Brown, S. W., & Hight, T. L.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86-1603.
- McCullough, M. E., Worthington, E. L., Jr., & Rachal, K. C. (1997).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321-336.
- Mullet, E., & Girard, M. (2000). Developmental and cognitive points of view on forgiveness. In M. E. McCullough, K. I. Pargament, & C. E. Thoresen (Eds.),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Y: The Guilford Press.
- Mullet, E., Neto, F., & Riviere, C. (2005). Personality and its effects on resentment,

- revenge,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In E. L. Worthington, Jr. (Ed.), *Handbook of forgiveness*. NY: Routledge.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eed, G. L., & Enright, R. D. (2006). The effects of forgiveness therapy on depression, anxiety, and posttraumatic stress for women after spousal emotional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 920-92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pada, M. M., Nikčević, A. V., Moneta, G. B., & Wells, A. (2007). Metacognition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and smoking dependence. *Addictive Behaviors*, 32, 2120-2129.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D. Jan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NY: Springer Verlag.
- Spring, J. A. (2004).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How can I forgive you?]. (양은모 역). 서울: 문이당. (원전은 2004년에 출판)
- Subkoviak, M. J., Enright, R. D., Wu, C., Gassin, E. A., Freedman, S., Olson, L. M., & Sarinopoulos, I. (1995). Measuring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late adolescence and middle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18, 641-655.
- Tangney, J. P., Boone, A. L., & Dearing, R. (2005). Forgiving the self: Conceptual issues and empirical findings. In E. L. Worthington, Jr. (Ed.), *Handbook of forgiveness*. NY: Routledge.
- Thompson, Y. L., Snyder, C. R., Hoffman, L., Michael, S. T., Rasmussen, H. N., Billings, L. S., Heinze, L., Neufeld, J. E., Shorey, H. S., Roberts, J. C., & Roberts, D. E. (2005). Dispositional forgiveness of self, others, and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73, 313-359.
- Toneatto, T. (1999). Metacognition and substance use. *Addictive Behaviors*, 24, 167-174.
- Weiner, B., Graham, S., Peter, O., & Zmuidinas, M. (1991). Public confession and forg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59, 281-312.
- Wells, A., & Matthews, G. (1994). *Attention and Emotion: A clinical perspective*. Hove, UK: Lawrence Erlbaum.
- Worthington, E. L., Jr., & Scherer, M. (2004). Forgiveness is an emotion-focused coping strategy that can reduce health risks and promote health resilience: theory, review, and hypotheses. *Psychology and Health*, 19, 385-405.
- Worthington, E. L., Jr., & Wade, N. G. (1999). The psychology of unforgiveness and forgiveness and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 385-418.
- Worthington, E. L., Jr., Witvliet, C. V. O., Pietrini, P., & Miller, A. J. (2007). Forgiveness, health, and well-being: A Review of evidence for emotional versus decisional forgiveness, dispositional forgivingness, and reduced unforgivenes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30, 291-302.
- Younger, J. W., Piferi, R. L., Jobe, R. L., &

Lawler, K. A. (2004). Dimensions of forgiveness: The views of laypers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1, 837-855.

원고접수일 : 2010. 9. 8.
1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0. 11. 2.
게재결정일 : 2010. 11. 19.

Influence of Forgiveness Beliefs on Forgiveness, Negative Affects, and Subjective Well-Being

Soo-A Cho

Department of Psychiatry,
Asan Medical Center

Seok-Man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Young-Jin Lim

College of Libe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aims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concept of forgiveness beliefs as meta-cognition beliefs that effect forgiveness decisions, and to develop the Forgiveness Beliefs Scale (FBS), which has been assumed to assess the meta-cognition of forgiveness and finally, to measure new aspects of forgiveness that had not been assessed by preexisting forgiveness scales.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454 high school students. Results suggested that the FBS consisted of three factors, i.e. Self Damage, Negative Effects, and Positive Effects. Reliability and other validity analyses of the FBS were conducted to validate the scale. Further,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orgiveness beliefs, forgiveness, negative affects, and subjective well-being were explored.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FBS had good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Results of a correlation analyses revealed that higher levels of forgiveness beliefs related to more forgiveness, less negative affects, and a higher subjective well-being. Overall,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FBS has both valid and reliable psychometric propertie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result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forgiveness beliefs, forgiveness, subjective well-being, negative affects